

## 시베리아의 망령들과 ‘정의(情誼)’의 실험 — 이광수의 『유정』과 안창호의 갑자논설(甲子論說)을 중심으로\*

정 주 아\*\*

### 요약

이 글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유정』이 ‘인정의 문제’ 즉,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작용에 착목하여 쓰였지만 끝내 감정을 소거하는 경지로 나아간다는 서사적 역설의 의미를 논의한다. 본문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193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 운동 진영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춘원이 민족적 단결의 방법론으로 유심론을 제기하게 되는 맥락을 살피고, 이러한 흐름이 ‘마음의 힘’에 주목하는 소설을 쓰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어 감정의 발산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베리아의 공간적 특성을 톨스토이의 『부활』과 견주어 논의하였다. 톨스토이의 영적 자각을 이끈 동인이 신이었다면, 흥사단 이념과 민족운동 일세대의 영향력은 춘원에게 여전히 수행자적 태도를 이끄는 절대적 동인이 된다는 점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광』의 ‘갑자논설’에 이미 ‘유정’이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던 배경을 살피고 이로써 『유정』의 형식이나 내용이 견고한 가족애를 의미하는 ‘정의(情誼)’의 구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는 민족적 단결이 더 이상 당위로 수용되지 않는 시대에 개인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살폈다.

주제어: 이광수, 유정, 안창호, 톨스토이, 동광, 갑자논설, 유심론, 정의(情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760).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목차

1. '정'의 소설
2. 유심론(唯心論)과 마음의 힘
3. 신 없는 세상의 톨스토이
4. 시베리아의 망령들
5. '유정'한 사회와 '정의(情誼)'의 확산
6. '마음의 힘'과 감정교육으로서의 문학

## 1. '정'의 소설

1933년 『유정』의 연재를 앞두고<sup>1)</sup> 춘원은 작가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나는 인생생활을 움지기는 힘중에 가장 힘잇는것이 인정인것을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것도 가장 악착한것도 인정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높게하고 깨끗하게 하는것도 인정인것을 맞습니다. 돈의 힘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군대의 힘으로도 할수업는 힘을 인정의힘으로 할수잇스리만큼 인정에 신비한 힘이 잇는것을 맞습니다. 나는 순전히 정으로만 된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절망과 회한과 흥분과 침울등등 인정만으로 된이야기를 쓰고시됩니다.”<sup>2)</sup>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유정』의 제재는 ‘인정(人情)’이다. 아름다운

1) 『유정』은 『조선일보』에 1933.9.27-12.31.까지 총 7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사전류를 포함하여 시중 대부분의 매체가 유정의 연재시기를 1933.10.1.-12.31., 연재 횟수를 76회로 소개하고 있으나 오류이다. 『유정』의 서지 정보 정정 및 단행본 인쇄 과정에서 생겨난 이본 등에 대해서는 정주아, 「이광수 『유정』의 신문연재본과 이본들」, 『인문논총』75(4), 2018, 195-227면 참고.

2) 「석간연재신소설-유정」, 『조선일보』, 1933.9.22, 1면.

동시에 약착하고 인생을 높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인정을 예찬하며 작가는 인정의 신비한 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작가가 '인정'을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에 한정하여 쓰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인간의 여러 감정을 모두 뭉뚱그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순전히 '정으로 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것이고, 이에 사랑 미움 질투 원망 등 앞서 열거된 감정의 제 양상들은 장차 '인정으로 된 이야기'를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필 의도를 놓고 본다면 『유정』은 과연 '정의 소설'이라 부를 만하다. 주지하듯 『유정』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교직자 최석과 그의 수양딸 남정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극적인 소재 탓에 연재 당시 작중 모델이 누구인가를 두고 소문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대중적인 반응은 작중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부녀간의 연애라는 충격적 소문이 퍼지자 순식간에 최석과 남정임은 흥분과 호기심에 휩싸인 대중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공공연한 조롱거리가 된다. 수양딸의 존재에 늘 질투와 불안을 느끼던 아내는 남편과 딸의 불륜을 확신하고 분노하여 울부짖는다. 졸지에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쓴 최석은 절망 끝에 죽음을 결심하고 조선을 등지고 시베리아로 향한다. 그야말로 사랑, 미움, 질투, 원망 등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형국이다.

윤리적이고 성실하게 살아 온 개인에게 닥쳐 온 가족 갈등 및 사회 활동의 위기, 그로 인한 가출과 외국행이라는 『유정』의 스토리는 1930년대에 들어 춘원이 『동아일보』 지면에 써낸 소설들과 견주어 보는 경우 그 이질성이 선명해진다. 가령 『군상』 연작이<sup>3)</sup> 보여주는 세간 풍속에 대한

3) 1926년 동아일보사 편집국장으로 취임한 이래, 춘원은 동아일보 지면에 꾸준히 소설을 연재했다. 1927년부터 1929년 사이 춘원의 집필 활동은 지병으로 인해 저조한 편인데, 이 시기에 춘원은 『동아일보』에 역사소설 『단종애사』(1928.11.30.-1929.12.11)를 연재했다. 1930년에 들어 『동아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군상』 3부작 (「혁명가의 안해」, 1930.1.1.-2.4; 「사랑의 다각형」, 1930.3.27.-10.31; 「삼봉이네 집」, 1930.11.29.-1931.4.24.)의 연재는 1929년 신장절제술을 받은 이후 춘원의 창작 및 사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면과 겹쳐져 있다.

시사적 재현이라든가, 『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이 보여주는 농촌 공동체 건설에 대한 강력한 주장 등 대중을 향한 교화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가 『유정』에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부각되지 않는다. 대중을 피해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홀로 번민하며 은둔의 땅으로 찾아드는 고독한 주인공이란, 작중 인물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민족 사업의 당위성과 연결시키곤 하는 춘원 특유의 공적 글쓰기의 문법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유정』은 춘원의 후기 소설을 특징짓는 종교적 경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sup>4)</sup>

그러나 물론 대중을 향한 교육적 발화의 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작중의 도덕적인 메시지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겠다. “눈 덮인 몽고 사막과 흥안령을 넘어서 시베리아로 달리는 감상”에서부터<sup>5)</sup> 『유정』의 구상이 시작되었다는 작가의 고백이 말해주듯, 이 소설의 본령은 시베리아의 대자연으로 향하는 방랑길에 최석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번뇌에 있다. 최석의 번뇌가 갖는 깊이와 울림은 『유정』을 단순한 통속 드라마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실 나는 정임을 사랑한다’는 최석의 뒤늦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딸을 사랑하여 간음한 아버지’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죽음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작심하는 순간에, 그것이 단지 누명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정』의 진짜 서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말하자면, 불륜을 향한 세간의 조롱과 아내의 확신은 최석의 적극적인 부정 덕에 유예되어 있을 뿐, 정임을 향한 욕망에 괴로워하는 최석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치 ‘지나간 미래’처럼 놓여 있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목도한 자로서 최석은 그 불길한 운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도피할 수밖에

4) 주요한, 「해설- 춘원의 사상」, 『이광수 전집』17, 삼중당, 1962, 557면.

제1기는 ‘인도주의·계몽사상의 소개가 주조를 이루던 시기’, 제2기는 ‘민족성의 개조를 주장하던 시기’, 제3기는 ‘영의 구원을 모색하는 종교적 경향 시기’ 등으로 나눈 바 있다.

5)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13, 삼중당, 1962, 219면.

에 없다. 이에 시베리아를 향하는 그의 여행은 내면에 들끓고 있는 정의를 향한 애욕으로부터 자신의 결백을 지켜내기 위한 고난의 순례가 된다. 끝내 최석은 자살과 다름없는 죽음을 맞고, 이로써 자신의 애욕을 끝까지 통제하고 육체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

육체적인 타락을 곧 죄악과 동일시하면서 도덕적 엄격성과 절제를 강조하는 태도는 춘원의 문학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다. 다만 이 문맥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듯 『유정』이 구현한 서사를 앞서 살폈던 작가의 말과 비교해 보는 경우에 생겨난다. '인정의 신비한 힘'을 예찬하며 '정'으로만 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밝혔던 춘원의 포부는 얼마나 실현이 된 것인가. 엄밀히 말해 최석이 거둔 최후의 승리는 '정과의 투쟁' 즉, 작중에서 최석이 "내 속에 일어난 혁명"이라<sup>6)</sup> 일컬었던 애욕의 억압과 일소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사랑 미움 질투 등 '인정의 힘'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작가의 저 언급은, 결국 인정이란 사악한 힘이기에 억눌러야만 한다는 문맥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예찬의 대상인 '인정'을 말소함으로써만 소설을 완결할 수 있었다면, '인정의 힘'의 구현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그리 간단히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무엇보다도 '정'이 춘원의 문학에서 문학의 본질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일찌감치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춘원에게 '정'이 '동정(同情)'과 같은 의미로 가족애·형제애의 구현을 위한 매개로 요청되었던 것임을 감안한다면 새삼 뒤늦게 개인의 감정을 파고들며 '인정'을 논한 필요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다시 말해 1930년대에 이르러 '인정만으로 된 소설'을 새삼 호명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글은 이렇듯 『유정』의 서사에 존재하는 '인정'의 의미에 대한 모순에 대해 논하고, 이로부터 춘원이 시도한 '정의 소설'이 갖는 의의에 대해

6) 이광수, 『유정』, 태학사, 2019, 145면. (이후 『유정』의 인용은 이 판본을 따른다.)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크게 보아, 그간 춘원의 문학세계에서 전환의 계기로 언급되어 온 『유정』의 특수성을 다시금 연속성의 차원에서 재배치를 해보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 2. 유심론(唯心論)과 마음의 힘

1920년대 후반은 춘원에게 있어서, 흥사단 조직의 용어로 말하자면 ‘교육·언론 등의 표현 운동’<sup>7)</sup>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1926년 1월 수양동우회가 발족되고, 같은 해 5월에 기관지인 『동광』이 창간되었다. 물론 수양동우회 발족 이전에도 춘원의 창작은 흥사단의 사업 및 이념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흥사단 국내 지부 격인 동우회가 발족한 이상 창작과 사업이 보다 직접적으로 결속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 신병으로 주춤하던 춘원의 작품 활동은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군상』(1930-31)과 『흙』(1932)을 연재하면서 본격화되고, 이후 『조선일보』로 이직한 춘원이 당지에 『유정』(1933)을 연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주지하듯 『흙』의 주제인 농촌공동체 운동은 1920년대 중후반 도산 안창호에 의해 주도되었던 이상촌 건설 사업이며, 『흙』은 이 운동의 무대를 국내로 옮겨서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sup>8)</sup> 이상촌을 일컬어 “모범부락,

7) 주요한 편저, 『안도산 전서』, 삼중당, 1963, 393면.

8) 도산의 이상촌 건설 사업은 단순히 구상의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입 및 이주자 모집 등 실질적 토대를 갖추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도산은 북중국 일대에 이상촌 건설 후보지를 모색하기도 하고, 1926년 여름에는 주요한을 상해로 불러내어 동광의 경영 문제를 의논하는 한편 이상촌의 투자자와 가입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위의 책, 393면.) 국내의 수양동우회도 이상촌건설 사업에 발맞추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찰의 치안유지위반심문조사에는 “동우회의 방계사업으로 재단법인 통속교육보급회를 설립하여 이광수, 허연(許然), 한승인(韓昇寅) 등이 이사가 되었다. 황해도 해주에 당시 가격 약 3000엔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同友會關係者檢舉=關スル件>, 1937.6.29.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독립운동 근거지, 거생지"라고도 불렀으며, "일본 통치 하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의 집단 생활지이자 농촌 생활의 표본으로 해외 동포가 모국의 문화를 보존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요한의 증언처럼,<sup>9)</sup> 이상촌은 식민 정책에 의해 고리의 이자에 시달리거나 농지를 빼앗기는 조선 농민을 수용하고 독립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도산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농지를 수탈당하고 유랑민이 되어 만주로 떠나는 농민 일가의 처절한 좌절에 대해 춘원은 『군상』 연작 중 「삼봉이네 집」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후반은 춘원류(類) 민족주의 운동의 유효성을 두고 세간의 비난이 본격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민족자체 내에 계급분열이 구체화함을 보게 된 결과" 민족문학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민족문학은 '자살'밖에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며,<sup>10)</sup> '인도주의에 연연하는 시대착오적인 선택'<sup>11)</sup>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잠시 정간되었다가 1931년 속간된 『동광』에 일련의 '힘' 시리즈가 실리자,<sup>12)</sup> 춘원이 결국 '파시스트화'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sup>13)</sup> 요컨대 중국을 거점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촌의 구축과 그에 따른 자금의 확보 등 도산의 흥사단 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 대의나 방향이 국내에 전달될 때에는 원론적 차원으로 추상화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조선인이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민족주의의 당위성을 토대로 민족적 단결을

9) 주요한, 『안도산 전서』, 399-400면.

10) 양주동, 「회고·전망·비판-문단제사조의 중흥관」, 『동아일보』, 1931.1.4.

11) 양주동, 「문단측면관(三)」, 『조선일보』, 1931.1.3.

12) 권두언 「우리의 뜻」(1931.5), 「힘의 찬미」(1931.11), 「힘의 재인식」(1931.12) 등이 해당된다. 이 글들은 1931년 발생한 만주사변이 곧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전면전으로 확대되리라고 보았던 동우회 수뇌부의 예측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13) 김명식, 「영웅주의와 파시즘-이광수씨의 몽을 계함」, 『동광』31, 1932.3.

'힘'을 강조하는 일련의 글과 파시즘으로의 경사를 직결시켰던 당대의 의혹은 지금도 춘원의 대일협력력을 소급적으로 단정하는 주요한 논거로 활용된다.

호소하는 민족운동론이란 당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상주의적인 관념론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1926년 창간된 동우회기관지 『동광』에 연재된 일련의 논설과 권두언 등은 새삼 주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조선의 주인’, ‘합동과 단결’, ‘참을 추구하자’, ‘지도자의 요건’, ‘힘을 기르자’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대부분 산옹(山翁)과 춘원의 이름으로 『동광』에 연재된 이들 논설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며 민족주의 운동 진영이 내세웠던 담론의 유용성 측면에서 춘원이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던 주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설들은 당초 “산옹”이란 아호를 사용한 춘원의 논설<sup>14)</sup>로 이야기가 되었으나,<sup>14)</sup> 산옹은 도산 안창호의 아호이다. 중국에 있었던 도산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동광』에 논설을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산옹이라는 이름으로 도산의 논설이 실릴 수 있었던 정황에 대해 주요한은 “1924년(甲子) 봄 도산이 중국 북경에 체류할 때 이광수를 불러 필기시킨 글”이며, “『동광』에 ‘산옹’이라는 익명으로 여러 호에 갈라 연재하였지만 검열에 걸려 삭제된 부분이 많다”고<sup>15)</sup> 후술하고 있다. 주요한은 이 글을 ‘갑자 논설’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sup>16)</sup>

도산이 구술하고 춘원이 필기하여 후세에 남겨진 도산의 민족운동론, 이른바 ‘갑자논설’의 작성 및 게재 방식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광』의 권두언 및 논설이, 적어도 이 잡지가 1차 폐간을 맞는 1927년에 이르기까지, 본래 1924년에 마련되었던 도산의 민족운동 담론을 시간차를 두어 지속적으로 분재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당대의

1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숲, 1999, 161면.

15) 주요한, 『안도산 전서』, 367면.

16) 이른바 ‘갑자 논설’의 후일담은 같은 책의 또 다른 대목에도 등장한다. 1924년 독립운동이 침체에 접어들자 도산은 ‘원동 어떤 지점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이를 ‘이상촌설립’이라 부르며, 이 계획을 실현하고자 이광수를 북경으로 몰래 불러 연락을 취한다. 그 부산물이 「동포에게 드리는 글」 즉, ‘갑자논설’로서 주요한은 “도산 일대 자신이 구술한 유일의 문장이 후세에 남게 된 것”이라고 평가한다(위의 책, 365면.).



국내·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주인론·단결론·상호협동론 등으로 요약되는 도산의 민족운동론이 『동광』을 일관하는 주지(主旨)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산이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논설의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 춘원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도산의 명연설에 대한 증언은 종종 등장하는 것이지만, 말과 글은 엄연히 다르다. 잡지에 게재되는 논설의 문장에는 말(구어)의 힘을 뒷받침했던 표정 및 음성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적인 수사들이 스며들기 힘들다. 논설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논리와 표현 등을 부여하면서 도산의 구상을 정돈된 민족운동의 기획으로 정리한 것이 춘원의 역할이다. 이는 다만 도산의 말을 춘원이 기술했다는 단순한 역할 분담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구어로 제시된 도산의 기본 개념이 춘원의 논리와 비유를 빌려서 그 표현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원론적 차원과 해석적 차원의 경계는 과연 어디쯤이냐는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말과 글의 혼종 상태를 감안한다면 『동광』에 실린 '산옹'의 논설은 도산의 것이기도 하고 춘원의 것이기도 하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동광』에 실린 도산/춘원의 논설은 어찌 보면 춘원이 기획한 민족운동의 구체적 방향이 도산의 기본 개념을 빌려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장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춘원의 기획이 도산의 음성이 지닌 권위를 덧입은 채 발화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둔 다음에야 우리는 『동광』에 등장하는 '힘의 찬미'나 '파시즘'에 대한 춘원의 관심을<sup>17)</sup> 이해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그것은 도산의 '실력 배양주의', 즉 '힘을 기르자'는 평생 신조에서 출발한다.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전한 인격과 그 건전한 인격들로 된 신성한

17) 『동광』은 잡지의 '동광대학' 코너에서 '파시즘'을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1931.9). 또한 1932년 『동광』이 자금난으로 폐간되자 춘원은 사비 1000원을 내어 1933년 총 2회에 걸쳐 『동광총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 「파시즘 연구」 등의 글을 번역하여 실었다.(정주아, 「공공의 적과 불편한 동반자」, 『한국현대문학연구』40, 2013.8, 341면 참고.)

단결”이라는 ‘힘’의 정의는 1920년 상해에서 이루어진 춘원의 홍사단 입단 문답 때부터 규정되었던 것이다.<sup>18)</sup> 다만 그 원론을 당대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파시즘 또한 유력한 참조항이 된다. 1930년대 신간회 해소 국면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회주의 세력과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의 적대 관계가 노골화되었음을 감안할 때,<sup>19)</sup> 파시즘은 마르크스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한 유럽 민족주의 운동론의 사례로서 검토되는 것이다. 아울러 ‘에로’라는 신조어로 집약되는 퇴폐·향락의 풍조에 물들어 가는 젊은이들의 세태를 한탄하며 춘원은 그들을 민족적 위기 앞에 집결하는 순정한 존재들로 되돌리기 위한 방책으로라도 차라리 ‘이태리의 파시스트를 배우고 싶다’고<sup>20)</sup>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춘원에게 당대의 파시즘은 자본주의적 퇴폐풍조 및 마르크스주의와 대적할 수 있는 정치철학의 일환으로 수용된다. 이때 그 수용의 방식은 다분히 ‘춘원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는 퇴폐적 물신론이나 마르크스주의가 공통적으로 기반을 둔 유물론에 대항하여 도덕과 이상을 핵심으로 하는 ‘유심론(唯心論)’을 제시한다. 물질이 아니라 도덕이나 이상 같은 개인의 마음(心)을 움직여 민족을 결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철학의 일종으로서 파시즘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물심이원론자이다. 사람은 물적인 것이나 역사적 맥락으로만 살지 않는다. 인간은 도덕과 이상의 지배를 받는다.”<sup>21)</sup>

18) 춘원의 홍사단 입단 문답 (주요한, 『안도산 전서』, 309면.)

19) 이러한 적대 관계는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가 민족혁명운동에 계급성을 부여하여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운동)민족부르주아지와의 분리를 규정한 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12월 테제」는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로도 지목된다.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416-428면.)

20) 춘원, 「야수에의 복귀-청년아 단결하라 시대악과 싸호자」, 『동광』, 1931.5.

21) 춘원, 「묵상기록」, 『동광』, 1932.4.

“물질적 환경이 인생 생활을 제약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생활의 방향과 질을 규정하는 데 주동력이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우리의 이상을 믿고 우리의 노력이 원인을 작한 결과를 믿을 때에 감격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광명이 생기는 것이다. 현안이 다 큰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단결이라는 열쇠밖에 없다. 이것이 유심사관이다.”<sup>22)</sup>

인용에서 춘원은 스스로를 ‘물심이원론자’로 칭한다. 인생 생활의 주동력은 ‘물질적 환경’이 아닌 ‘생각의 힘’이라면서, 미래의 희망과 광명을 만드는 것은 이상과 노력을 믿을 때 가능하다고, 그러나 이는 ‘우리’ 차원의 단결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구상한 ‘유심사관(唯心史觀)’이다. 이때 그가 언급하는 ‘생각의 힘’이란 단순히 이성적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그의 유심사관이란 물질적인 토대가 아닌, 굳센 ‘마음(心)의 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역사적 발전 체계에 대한 구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념과 방법론들이 1932년 4월 도산이 상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이후 더욱 책임이 무거워진 춘원의 고민 속에서 고안된 것임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질주의적 향락과 사회주의 유물론에 맞서 유심론을 주장하는 춘원의 입장을, 앞서 “나는 인생생활을 움직이는 힘 중에 가장 힘 있는 것이 인정(人情)인 것”을 믿는다고 말했던 『유정』의 작가 춘원의 언급에 대입을 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인정’이란 모호한 용어는 단순히 감정의 제 양상을 종합한 말이 아니다. 인정이란 도덕과 이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양태를, 믿음과 결합된 마음의 양태를 가리킨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적 동요가 이미 일정한 힘과 방향을 부여받은 벡터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스피노자적 ‘정동’(affect)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춘원, 「난득삼보-민족과 인재, 유심사관」, 『동광』, 1932.8.

『유정』의 서사는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그리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세간에서 억울한 의혹을 받은 최석은 왜 아니라고 항변하지 않는가. 항변하기는커녕 최석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쓴 순간부터 정임을 향한 연정과 애육에 강렬하게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비밀 연애의 일반적인 플롯, 즉 남몰래 사랑하다 세인에게 발각된 이후 파국을 맞는 일반적인 플롯과는 반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뒤바뀐 플롯이란 결국 이 소설의 초점이 상식적인 비밀 연애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 그저 남녀 간의 금지된 사랑을 조명하는 데 놓여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자신이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비도덕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최석의 변뇌에 있다. 자신과 정임의 사회적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최석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도덕적 결백을 입증해야만 하고, 스스로 세상에 떳떳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육체적 애육을 순정한 사랑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도덕과 이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지닌 마음의 역량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육체를 지닌 인간에게 육체를 초월한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감정이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요컨대, 『유정』은 유심론의 문학적인 구현, 즉 ‘마음의 힘’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비단 민족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근본은 인간의 정신의 개조에 있다는 수양의 원칙을 그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례인 것이다.

### 3. 신 없는 세상의 톨스토이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한 남자가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시베리아로 떠난다는 『유정』의 설정은 톨스토이의 『부활』과 관련되어 이야기되곤 한다.<sup>23)</sup> 1930년을 전후하여 춘원은 공적인 지면에서 종종 톨스토이에 대해 회고하면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네홀류도프가 공작과 사회적 지위

를 모두 버리고...(중략)... 오직 옛날의 애인 카추우샤를 따라서 눈이 푸실 푸실 내리는 西伯利亞로 떠나가던 그 마당"이 '가장 가슴을 치는 대목'이라<sup>24)</sup> 말하기도 한다. 동경 유학 시절인 1908년 무렵 톨스토이를 처음 접한 이래, 춘원의 문학에서 작가이자 사회개혁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영향력은 곳곳에서 확인된다.<sup>25)</sup>

치씨는 아라사 땅으로서 바이칼주의 수부다. 눈 덮인 몽고 사막과 흥안령을 넘어서 시베리아로 달리는 감상은 비길 데 없이 광막하여서 청년 나의 꿈을 자아냄이 많았다. 나의 소설 『유정』은 이 길을 왕복하던 인상을 적은 것이다.<sup>26)</sup>

춘원이 떠올린 청년 시절 시베리아 대륙 횡단의 감상이란 1913~14년 사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재직하던 오산학교에서 마찰을 빚은 뒤 떠났던 여행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상하이, 블라디보스톡(海蔘崴), 만주의 목릉(무령, 穆陵), 시베리아의 치타(Chita) 등에 이르렀던 이 여행길이 당초 '교회학교'가 된 오산학교에서 톨스토이즘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했기 때문이라는<sup>27)</sup> 사실도 흥미롭다. 기독교에 배척 받은 청년이 시베리아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황 자체가, 정교회로부터 과문을 당한 톨스토이의 신산한 삶과 겹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상 청년기 춘원의

23) 김진영, 「삶의 텍스트, 소설의 텍스트」, 『Comparative Korean Studies』22(3), 2014, 11-49면.

24) 이광수, 『『부활』과 『창세기』: 내가 감격한 외국 작품』, 『이광수 전집』16, 364면.

25) 한국 문단의 톨스토이 수용에 대한 논문으로는 박진영, 「한국에 온 톨스토이」, 『한국근대문학연구』23, 2011.4, 193-227면. 이광수의 창작과 톨스토이 작품과의 관련을 살핀 논문으로는 박진숙, 「이광수의 「무명」과 톨스토이의 「부활」과의 관련성」, 『춘원연구학보』19, 2020.12, 9-37면; 최주한, 「이광수와 번역 「어둠의 힘」(1923)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94, 2016.5, 423-449면. 『부활』과 관련하여 춘원의 톨스토이 수용을 집중적으로 살핀 논문으로는 김진영의 앞의 논문을 참조.

26) 이광수, 「나의 고백」(1948), 『이광수전집』13, 삼중당, 1962, 219면.

27) 이광수, 「두옹과 나」, 『조선일보』, 1935.11.20.

시베리아 체험 속에서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은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유정』은 대중적으로 상투화된 『부활』의 “자기정화의 클리셰”와 춘원이 상상했던 ‘시베리아의 흰 눈’이라는 이미지가 합쳐져 탄생한 것<sup>28)</sup>이라는 해석이나, 춘원이 톨스토이를 다만 문학적으로만 사숙한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처럼 살고자 한 것<sup>29)</sup>이라는 해석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자기정화’ 의지와 시베리아 행의 모티프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활』과 『유정』의 유사점은 더 찾을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유정』과 『부활』의 뒤섞임, 다시 말해 춘원과 톨스토이의 뒤섞임 속에서 춘원의 『유정』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공통점보다도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차이의 지점이 아닐까.

“하느님 아버지, 절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소서. 제 안에 깃드시어 온갖 추함을 씻어주소서!”

그는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 속에 깃들어 깨끗이 해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다. 그사이 그가 원하던 바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 존

28) 김진영 교수는 특히 『부활』에서 주인공 네흐류도프가 카츄사 일행을 따라 시베리아로 향하던 계절은 무더운 여름인 데 비하여, 춘원이 『부활』을 평할 때 ‘네흐류도프가 카츄사를 따라서 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시베리아로 떠나가던’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대 한국인의 심상에 『부활』과 시베리아의 시각적 향수가 결합되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김진영, 앞의 논문, 37면.)

29) 위의 논문, 35면. 김진영 교수는 ‘톨스토이가 되고자 한 이광수’라는 방인근의 평가를 기초로, ‘작가와 인간’이라는 두 층위의 톨스토이 사이에서 춘원을 비롯하여 당대 독자들이 선택한 것은 톨스토이적인 삶 그 자체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논자는 춘원의 톨스토이 수용이 사상 전모를 흡수하기보다는 실용적으로 취사선택된 면이 있기에, 1930년대 이후 춘원이 톨스토이를 언급하는 맥락이란 그가 대일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톨스토이의 사상을 자기 정화화의 보류로 차용했을 가능성”(22면)이 있다고 본다.

30) 인간 내면의 자아를 정신적 자아와 동물적인 자아 간의 투쟁의 장으로 파악하거나, 모든 인간간의 마음속에는 보편적인 사랑의 맹아가 잠재되어 있다는 관점 등이 그러하다. 이는 비단 『부활』뿐만 아니라 톨스토이 후기 작품에 공통된 관점이며 춘원 문학의 일반적인 주제와도 상통한다.

재하던 하느님이 의식 속에 깨어난 것이다. 하느님의 영성을 느낀 그는, 삶의 기쁨과 활력, 자유와 강력한 선의 권능까지 체감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sup>31)</sup>

『부활』의 주인공 네홀류도프의 '각성'에는 자신의 영혼 안에 신이 깃든다는 절대적 믿음이 자리한다. 신의 영성(靈性)이 네홀류도프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를 방탕한 생활에서 구원하여 선으로 인도한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제의나 교리가 아니며 하느님은 저마다 각자의 영혼 안에 깃든다는 주장으로 톨스토이가 정교회와 마찰을 빚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네홀류도프의 영혼이 정화되는 순간을 그린 위의 장면은 결코 단순한 허구적 상상력에 그치는 것은 아니겠다. 사유재산의 철폐와 농민운동, 종교의 개혁 등을 주장했던 개혁적인 사상가이자 예술가였던 톨스토이의 소명 의식이나 실천적 수행은 신의 섭리를 따른다는 강력한 믿음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톨스토이의 실천적 삶은 신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와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신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유정』의 주인공 최석의 경우는 어떠한가. 신을 믿지 않는 최석을 각성시킨 것은 무엇이며 그를 시베리아로 몰아간 것은 무엇인가. 이는 최석을 유형의 땅으로 몰아넣고 저토록 난폭하게 금욕을 강요하는 절대자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다. 아울러 대체 최석은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학대해야만 하느냐는 서사적 개연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아아, 나는 어떻게나 작은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붙은 조그마한 한 버리지. 나의 존재는 이 큰 우주에서 불 때에 도무지 감각되지 않는 미물. 티끌 한 알갱이보다도 작고 가볍고 뜻 없는 미물. 그러나 형! 이것이 무엇이오? 내 속에 요 반짝반짝하는 것이 무엇이오? 저 한없는 공중과 한

31) 레프 톨스토이, 『부활』1, 백승무 옮김, 문학동네, 2013, 161면.

없는 세월과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의식하는 요  
것이 무엇이오? 이것이 생명의 신비요.<sup>32)</sup>

그 숨긴다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열정이요. 정의 불길이요, 정  
의 광풍이요, 정의 물결이요. (중략) 지위, 명성, 습관, 시대사조 등으로  
일생에 눌리고 눌렸던 내 자아의 일부분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요. 한 번  
도 자유로 권세를 부려보지 못한 본능과 감정들이 내 생명이 끝나기 전  
에 한번 날뛰어 보려는 것이요. 이것이 선이오? 악이오? 그들은 내가 지  
금까지 옳다고 여기고 신성하다고 여기던 모든 권위를 모조리 들어 옆으  
려고 드오. 그러나 험! 나는 도저히 이 혁명을 용인할 수가 없소. 나는 죽  
기까지 버티기로 결정을 하였소.<sup>33)</sup>

따뜻한 기독교적 세계의 은총 속에서 쓰인 『부활』과는 달리, 『유정』의  
세계는 차갑고 앙상하기 짝이 없다. 첫 번째 인용은 시베리아의 입구라  
할 북만주의 평원에서 최석이 펼치는 우주론의 일절이며, 두 번째 인용은  
시베리아에 이른 최석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동요 속에서 괴로워  
하는 부분이다. 우주의 한 점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자기 안의 생명을 확  
인하는 최석의 모습은 문명을 벗어나 원시 대자연과 마주치는 존재의 모  
습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인 생명 예찬 그 이상은 아니다. 도리어 저 척박  
한 만주 평원과 시베리아의 대자연은 번식예의 본능, 즉 강력한 애육이  
곧 종족의 생존 및 보존과 직결되는 즉물적인 공간이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시베리아와 바이칼호는 표면상으로는 조용하고 적막하기 그지없  
지만, 그 불모성이 곧 내적 평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다. 오히려 시베  
리아 대지의 표면적인 침묵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연장하고

32) 이광수, 『유정』, 116면. 최석이 북만주 일대 호숫가를 헤매며 독백하는 이 장면은 본래 『조선  
일보』 신문연재분 중 제43회에 해당하나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던 대목으  
로, 금번 태학사 전집 판본에서 그 내용이 복원되었다.

33) 위의 책, 182면.



종족을 보존하려는 격렬한 번식의 투쟁이 진행 중이며, 이는 어떻게든 내면에서 들끓어 오르는 애욕을 억누르고 외적으로는 냉정한 평정을 유지하려는 최석의 투쟁과도 닮아 있다. 이에 시베리아는 한편으로는 최석의 내적 투쟁을 표상하는 가혹한 유형의 땅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끝내 죽음으로서 내적 투쟁에서 승리하고자 마는 최석의 도덕적 결벽을 닮은 냉혹한 순백의 땅인 것이다. 요컨대 적어도 이렇듯 차가운 시베리아의 대자연 속에는 최석을 품고 인도할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최석은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고 통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홀로 짊어진다.

사정이 이렇다면 재차 물을 수밖에 없다. 톨스토이를 닮고 싶었으되 톨스토이와는 달리 신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춘원은 무엇에 기대어 움직였는가. 대체 무엇이 생명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애욕을 꺾어버리도록 저토록 수행자적 태도를 강제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시베리아의 망령들

『유정』의 화자(‘N형’)은 소설의 도입부에서 세간의 비난을 받는 최석과 남정임을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그런고 하면, 사람의 세상에서 동정할 만한 곳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세상은 망할 것이니까.<sup>34)</sup>

이 말은 세상이 동정할 만한 곳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 문제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니까 동정할 만한 곳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34) 위의 책, 18면.

세상이 비로소 ‘유정’한 사회라는 뜻이겠다. 그러나 최석과 남정임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부녀가 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세간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면 그 자체로 무리한 요구는 아닐까. 기실 『유정』에서 최석을 고립시키는 세상의 ‘무정함’이란, 비단 일방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만일 최석, 남정임 두 사람이 금시에 조선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최석, 남정임 두 사람을 대하여서는, 세상은 다 무어라고 하든지 저만은 두 사람의 깨끗함을 아노라 하여 두 사람을 시비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도무지 이 세상이 이렇게 무정하고 반복무상한 세상인가보다.<sup>35)</sup>

문제는 두 사람을 알고 지내온 이들의 불신과 배신, 그리고 위선에 있다. 화자 N이 문제 삼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최석과 남정에 대한 루머가 퍼진 뒤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갖은 모욕과 혐구를 동원하여 두 사람을 홍보고 모욕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두 사람이 막상 나타나면 ‘저만은 두 사람의 깨끗함을 아노라’며 도리어 세상을 책망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즉, 화자는 이른바 ‘겉과 속이 다른’ 지인들의 행실을 탓하며 세상의 무정함을 한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는 또 있다. 조선을 떠나기 전 최석은 학생들로부터 ‘에로교장’이라 불리며 모욕을 당한다. 최석은 자신 때문에 교장 선거에서 떨어진 교무주임 K가 이 사건을 꾸짖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K는 교장직을 내놓겠다는 최석을 말리며 염려했던 인물이다. K는 학교로 취재 온 기자에게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사람은 외모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이며 최석의 인간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를 남긴다. 그러니까, 최석을 조선 바깥

---

35) 위의 책, 16-17면.

으로 밀어낸 것은 정체불명의 군중들이 던지는 비난이 아니었다. 일차적으로는 그가 보살피 온 아내와 자식, 몸담아 일하던 직장의 동료처럼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정황에 대한 낙심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그를 믿고 염려하는 체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닥친 곤경을 조롱하고 이용하기까지 하는 지인들의 위선이 최석을 밀어낸 것이다.

나아가, 조선을 벗어나 시베리아로 향했다고 해서 그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유쾌했던 것도 아니다. 최석은 하르빈에서 육군소장 'R'을 만난다. 'R'은 경술국치 때 아라사로 망명하여 무관학교를 졸업한 인물이다. 젊은 시절 조선의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인물이지만, 소비에트 장교로 재직 중인 지금은 도리어 조선을 잊고 살고 있으며 도리어 동포를 꺼리게 되었다고 털어 놓아 최석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어 흥안령 입구의 사막에서 만난 R부부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이들의 선친인 'R씨'는 가족을 송가하여 간도로 이주한 뒤 '간도 개척자'로서 조선인 문화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아들 R은 선친이 세운 여학교의 교사로 일했으나 그 제자와 연애 관계로 세간의 비난을 받자 함께 시베리아로 도피한 뒤 순결을 지닌 채 함께 죽기로 결심한다. 두 개의 별을 따라가다 그 별이 지는 곳에서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무덤이 될 구덩이까지 파놓았으나 두 사람은 마음을 돌려 그곳에서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른바 '두 별 무덤' 에피소드로 알려진 이 장면은 'R부부' 대신에 최석과 남정임을 대입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닮은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앞서 몽골 사막에 내려 호숫가를 거닐며 두 별을 따라 방황하는 최석의 모습이라든가, 결말부에 시베리아 바이칼호를 헤매며 별이 지는 곳에 별 무덤을 만들고 죽겠다는 최석의 다짐 등 묘사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R부부'의 일화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별개의 스토리로 구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끝내 최석은 R부부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쾌한 듯 외면하고 떠난다. 최석은 R부부에 자신과 정임을 대입해 보고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한 조각이라도 들어올 것"이 두

럽다고 말하고 있다.<sup>36)</sup>

조선 사회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비행기로 조선 영토를 지나는 것조차 꺼렸던 최석이, 조선을 잊었으며 조선동포가 달갑지 않다는 육군소장 'R'의 말에 당황하는 장면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 게다가 장차 자신들의 아이들을 조선의 일꾼으로 키우겠다는 'R부부'의 포부 앞에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시베리아로 떠난 최석이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배치된 인물들이 아니다. 앞서 최석이 조선을 등지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 상대에 대한 믿음을 잃었거나 혹은 상대를 향한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들이었던 것처럼, 시베리아로 향하는 춘원이 만나는 인물들도 삶의 어떤 순간에 '변심'한 사람들이다. 그 변심의 이유가 악의에 의한 것이든 선의에 의한 것이든 그들은 초심을 잃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음을 바꾼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을 피해 시베리아로 향하는 최석의 결단은 이들의 변심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한다. 정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이로써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복역하다 세상을 떠난 동지의 딸을 맡아 기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세간의 의혹이 어디까지나 오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석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억누르고 "개선의 군주"가 되고자 한다. 최석의 시베리아 은둔은 비단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선택된다. 내면의 애육을 소거하기 위한 최석의 투쟁은 세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것, 마음과 행동이 같은 도덕적 완결무결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정』이 창작되던 무렵이 1932년 만주국의 설립을 전후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이 강화되던 시기임을 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앞서 연재된 「삼봉이네 집」에서도 묘사되었던 만주의 국제 정세

36) 위의 책, 139면.

는 최석이 왜 하필 만주별판을 횡단하며 과거 독립운동의 후예들을 만나야만 했는가, 최석이 왜 하필 시베리아까지 금옥의 여정을 감내하며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군주로 거듭나야 했는가를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sup>37)</sup>

『유정』의 연재 이후 1936년에 쓰인 『그의 자서전』에는 춘원이 청년 시절 실제 시베리아 여행길에서 실제 만났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만주 목릉의 추정(秋汀) 이갑(李甲)과 시베리아 치타의 오산(吾山) 이강(李剛)이다. 이들은 도산 안창호가 신민회 해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할 때에 함께 했던 동지들로, 오산 이강은 당시 한인들이 많이 살았던 치타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조직하라는 도산의 뜻에 따라 <정교보>를 발간했다. 추정 이갑은 같은 시기에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지역을 담당하며 청년운동 및 언론운동에 몰두하다 전신이 마비되는 병을 얻은 인물이다. 시베리아 방랑기에 춘원은 오산 이강이 발행하는 정교보 발행 사업을 도운 적이 있고, 추정 이갑의 의기에 깊은 인상을 받아 훗날 『동광』에 「무명씨진」(1931.3-6)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그의 생애를 기리기도 했다.

실존 인물인 신민회 동지들로부터 『유정』에 등장하는 허구 인물인 남백과의 딸 정임과 '간도 개척자'의 자손인 R부부에 이르기까지, 춘원에게 시베리아는 독립지사들과 도산 안창호를 빼놓고는 사유할 수 없는 공간이다. 도산이 체포되어 투옥된 당대의 시점에서, 신민회의 자강운동이나 만주와 아라사를 넘나들었던 독립지사들의 활약상은 이미 전설로 잊혀져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대 사회의 망각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도래하는 존재들을 일컬어 데리다의 명명을 따라 '유령' 혹은 '망령'이라 부를 수 있다면,<sup>38)</sup> 춘원의 시베리아는 여전히 도산이 남긴 유령들이

37) 이러한 해석적 관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유정』의 공간적 배경과 당대 만주 및 시베리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피는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숨쉬고 있는 공간이다. 어찌 보면 최석이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던 남정임이 단지 최석을 시베리아로 이끄는 매개로 작용할 뿐 그 이후 작중 인물로서 변변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지사의 자손이자 동지의 딸인 정임은 끝까지 순결한 성녀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최석과 남정임이 두 별 무덤의 주인인 R부부의 선례처럼 육체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시베리아에 존재하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숭고함에 사사로운 육체적 애욕이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제 앞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생명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내면의 혁명’을 제압하도록 최석을 강제했던 절대자에 대한 질문 말이다. 톨스토이를 닮고 싶었으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신의 은총이라곤 없었던 춘원이 의지했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일까. ‘정의 혁명’을 제압하고 ‘개선의 군주’가 되겠다는 최석의 투쟁은 세상에 대한 도덕적 결백을 표명하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결백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상실, 변심, 표리부동 등은 인정(정동)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들이다. 인정의 말소를 통한 인정의 획득이란 역설은 ‘거짓 없는 한결같은 마음’과 ‘마음과 행동의 일치’라는 경지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흥사단의 첫 번째 덕목으로 강조되었던 ‘무실(참, 진실)의 소양’이다. 이때 혼란스러운 감정의 제 양상들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이끄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도덕적 완결의 지점에 이르러 소멸하는 부정적 매개가 된다.

도산의 피체로 흥사단 운동의 위기를 맞은 시기, 춘원은 인정(마음)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세상에서 배신당한 지식인을 시베리아로 떠나보내며

38)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201면. 데리다는 사회적으로 이미 지나간 것으로 간주되거나 존재가 없다고 전제되었으나 여전히 현존하는 것들을 유령/망령이라 부른다.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령의 존재방식은 존재와 비존재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춘원은 늘 '도덕운동'이라 불렀던 수양단체 운동의 첫 번째 덕목을 '감정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동우회 이념을 대중적 메시지로 드러낸 『흙』에 비한다면, 『유정』은 더욱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로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 5. '유정'한 사회와 '정의(情誼)'의 확산

가족이나 동료의 불신 혹은 위선이라는 문제는 『유정』에 앞서 발표된 『흙』에서도 이미 공동체의 과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등장한 바 있다. 살여울을 이상촌으로 개간하고 주민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막은 것은 자연 재해나 당국의 방해가 아니었다. 서로 반목하는 조선인 간의 다툼과 이기심이였다. 이에 소설의 결말에서 허승은 “살여울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아직 덜 깨달았단 말요.... 좀 더 부자들한테 빨려서 배가 고파야 정신들을 차릴 모양이요...”<sup>39)</sup>라는 폭언을 퍼붓고 검불랑으로 떠날 마음을 먹는 것이다. 이 소설은 춘원의 여느 소설처럼 선지자인 한민교 선생과 허승, 탐욕에 사로잡혀 악행을 저지르는 작은 갑이나 유정근 같은 인물의 선악 대결 구도로 설정되어 있고, 중국에는 악의 세력이 참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결국 이상촌 건설이라는 대업을 미완으로 남게 만든 이들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선악의 관념적 차원을 떠나 생존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살여울 주민들이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비단 악의 세력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얼굴을 바꾸면서 때로는 그를 배반하기까지 하는 지척의 동료와 이웃들이다.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둘은 결코 같은 차원일 수 없겠으나, 문제는 춘원이 통과한 과거에는 개인의 이익이

39) 이광수, 『흙』, 『이광수 전집』6, 394면.

민족의 이익과 동일시되거나 혹은 후자가 당연히 우선으로 간주되던 시기가 있었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무정』을 향한 대중의 성원이 그 증거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정(마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표명한 『유정』이 취하고 있는 서사적 전략이 대중을 상대로 한 집단적 교화가 아니라 ‘개인’이 지닌 ‘마음의 힘’을 파고든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민족적 위기’를 앞세운 운동 방식이 회의의 대상이 되고 지사적 이상주의가 빛바랜 시대에, 새롭게 요청된 대중적 감화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서 출발해서 감정을 소거해야만 하는 『유정』의 역설은 결과적으로 거짓 없는 마음이나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하는 극기(克己)의 차원으로 귀결된다. 이는 당대 사회를 퇴폐적 향락과 계급적 이익에 골몰하느라 병들었다고 보았던 춘원의 진단에서 나온 처방의 일환이며, 도산의 ‘무실(참)’의 수양론이 춘원에 이르러 ‘유심론’이라는 표현을 얻어 다시금 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정』의 창작 배경이 비단 개인의 정적인 내면 풍경을 그리는 데에만 놓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또 있다. 춘원 자신은 『유정』이 『무정』의 속편격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바 있지만,<sup>40)</sup> 두 작품의 구상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26년 6월 『동광』에는 이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라는 논설이 실린 바 있다. 필자는 ‘섬메’라는 아호를 쓴 도산이다.<sup>41)</sup> 이 글은 앞서 살폈듯이, 1924년 도산이 북경에 체류하던 시기 춘원을 불러내어 필기를 시켰다는 갑자논설의 일부이다. 도산이 구술한 글을 춘원이 필기하고 잡지에 적당히 나누어 분재했음을 감안하면 ‘무정’과 ‘유정’이 대구(對句)를 이루는 이 글의 제목은 춘원이 직접 만들어서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sup>42)</sup> 물론 ‘무정’과 ‘유정’을 의식

40) 이광수, 「『무정』 등 전 작품을 語하다」, 『이광수 전집』16, 304면.

41) ‘섬메’는 도산(島山)을 순 한글로 풀어쓴 것이다. 같은 호에 이미 도산의 기존 필명인 ‘산옹’을 사용한 글(「당신은 주인입니까」)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필명을 사용했다.

42) 한편 주요한은 도산이 직접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비교하여 언급하곤 했다고 여러



적으로 연결하여 언급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단정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정』의 창작 이전에 이미 '무정 대 유정'의 대립구도가 존재했고, 적어도 그 함의가 도산과 춘원 주요한 등 동우회의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공유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에서 화자인 도산 혹은 춘원은 조선사회를 무정한 사회라 평가한다. 사람들의 사회가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서구사회와 비교했을 때 조선사회는 규율과 공포에 의해 지배 받는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글에는 '정의돈수(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정의돈수'를 갖추어야 유정한 사회가 된다는 의미로, 해당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정의(情誼)는 친애(親愛)와 동정(同情)의 결합이다. 친애라 함은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써 사랑함이요 동정이라 함은 어머니가 아들의 당하는 고(苦)와 락(樂)을 자기가 당하는 것가터 녀김이외다. 그리고 돈수(敦修)라 함은 잇는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만하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 함이외다.<sup>43)</sup>

'정의(情誼)'란 동정에 친애가 결합된 것이라 정의된다. 모자간의 관계

차례 증언하고 있어서, 이러한 추측은 선부른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주요한은 도산이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비교할 때면, 1911년 도산이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건너갈 때 독일에서 그들을 친족처럼 대접했던 독일인 가족을 사례로 들곤 했다는 춘원의 회고를 소개한다.('안도산 전서', 122면.) 아울러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홍사단 발기회에서 도산이 '신성한 단결'의 의무를 강조하며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항상 말하곤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산은-인용자) 「정의돈수」 역시 단결의 요체인 동시에 민족성 개조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라고 인정하였다. 도산은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항상 말하였고, 유교적 예도가 형식에 떨어져 진정을 몰각함을 비판하였으며, 사랑의 세계, 빙그레 웃는 정지(情地)를 말하였던 것이다."(같은 책, 141면.)

43) 섬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동광』2, 1926.6.

를 들어 말하자면, 동정이 연민에 기반을 둔 공감을 뜻한다면 친애는 지극한 사랑의 감정을 의미한다. ‘정의’에 이어진 ‘돈수’는 정의를 더 ‘크고 많고 두텁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민족의 사활문제(死活問題)를 아페 두고도 냉정(冷情)한 우리 민족이 외다. 우리 하는 운동에도 동시간에 정의(情誼)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만하겠습시다. 정의가 있어서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이외다. (중략) 그 나라의 애국자를 결우(結遇)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르외다.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흠점만 집어 내다가 위난에 빠질 썩에는 구원치 안습시다.<sup>44)</sup>

조선처럼 무정한 사회에서는 조직 운동이나 단결 운동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화자가 주장하는 지점에서 정의돈수는 정치사상의 차원으로 비약한다. 화자는 이렇듯 유정한 사회에 이를 때에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단결 운동이 가능하고, ‘애국자에 대해 흠결만 잡고 그가 위난에 빠질 때 구원치 않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 말한다. 이는 분명 대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사를 존경하기보다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 폄훼하는 세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문장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치 혈연관계가 아닌 최석과 남정임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사회 구성원들을 마치 혈족처럼 상호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가족으로 묶고 나아가 이러한 사랑을 배양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실천 강령이 ‘정의돈수’라는 개념으로 새삼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정’ 혹은 ‘정의돈수’는 더 이상 민족적 당위에 의존한 집단적인 단결에의 호소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타적인 사랑이 개별자들을 하나로 묶어낼 동인으로 주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양한 감정의 부정적 소거를 통해 도달한 최석의 사랑이 결국 수양딸 남정임의 명예를 지켜내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었

---

44) 위의 책, 같은 글.

음은 이 대목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유정』의 서사적 장치들이 사랑의 배양과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유정』의 서사는 편지, 일기, 유서 등 각종 고백의 장치를 동원하면서 진행된다. 시베리아에서 보내온 최석의 편지가 전해지고, 최석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정임의 일기가 공개된다. 철부지 어린애였던 순임은 최석과 정임의 지원군이 되어 이들을 옹호하는 편지를 쓰고, 끝내 최석은 정임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일기를 남긴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듯 일인칭 고백의 장치들이 난무하지만, 소설 서사에서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읽히기 위한 고백'이 된다. 다시 말해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전제로 털어 놓는 고백인 것이다. 나아가 이들 일기, 편지 등은 일방적인 진실의 표명으로 그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목숨을 걸고' 건넨 대화이자 간곡한 부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자들은 발신자가 목숨을 걸고 써낸 진실을 저마다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진정성을 담보로 한 진실의 공유가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강력한 구속과 연대감을 만들어냄은 물론이다.

## 6. '마음의 힘'과 감정교육으로서의 문학

주지하듯 춘원은 문학운동을 민족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 바탕을 이루는 연대의 감정을 '동정(同情)'이라 표현하곤 했다. 이 감정에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라는 근간을 이룬다. 대중의 도덕적 교화와 단결 운동을 위해서는 감정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동정과 친애가 결합된 단계인 '정의'와 그 서사적 구현이라 할 『유정』은 집단적인 훈계나 교화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서의 '감정교육'에 대한 실험이다. 내면에 들끓는 이기적 감정을 제

어해서 이타적인 희생과 일관된 사랑으로 전환하는 사례인 것이다. 최석을 통해 인간의 본원적 욕망을 극단까지 끌어내고 제어한 결과로 얻어낸 실험의 결과들은 사뭇 긍정적이다. ‘마음의 힘’은 이기적 자아를 억누르고 파괴하는 힘을 갖는다. 최석은 죽음을 불사하고 최초로 결심했던 대로 자신과 정임의 명예를 지켜낸다. 최석의 이타적인 사랑은 급기야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던 순임까지도 사회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타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도록 만든다.

지식인의 개인적 고뇌와 순교자적 방랑을 그린 『유정』은 기존의 해석처럼 동우회 노선의 포기와 종교적 수행자로의 변신을 예고하는 전환기적 작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작품이 왜 ‘인정(마음)’의 문제에 주목하는가를 살필 때 그 정황은 간단치 않다. 1932년 도산이 체포되어 투옥된 사건으로 동우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틀림없으나, 이는 달리 보면 해외를 전전하던 도산의 귀환이기도 했다. 실제로 1933년 춘원이 『동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이직했다가 이듬해 사직하는 정황은 도산의 귀국을 계기로 동우회 조직을 재편하려 했던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sup>45)</sup> 당시 동우회는 위기이자 침체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의 확장이 아닌 단체의 결속을 꾀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었고, 춘원은 여전히 ‘우리 주의(主義)로 조선적 단일성을 고조하고 인격

45) 1934년 당시 『조선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호암 문일평은 5월 22일자 일기에서 춘원의 조선일보 사직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한 이유를 사장인 춘해 방응모에게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호암의 6월 일기에는 당시 조선일보 영업국장이자 동우회 계열 인사로 알려져 있던 김기범과 관련된 모종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한다. (문일평, 『문일평, 1934년』, 이한수 옮김, 살림, 2008.) 1933~34년 무렵 춘원의 『조선일보』로의 이직과 사직은 동우회 관련 조직화 사업이 신문사 내부에서 난항에 부딪혔던 것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당시 총독부 고등경찰계에서는 춘원의 이직과 사직에 대해,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도산의 가출옥을 앞두고 도산을 신문사 사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춘원, 주요한, 서춘 등의 동우회 계열 인사와 춘해와의 충돌에서 빚어진 일이라 파악하고 있다. (『修養同友會의 活動狀況』, 『고등경찰보』 4, 조선총독부경무국보안과, 발행일 불분명(1935년 추정),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

수양과 단체 활동에 힘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쉽 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6)</sup> 이렇듯 도산의 흥사단 이념과 동우회 활동의 연속성의 구도 속에 놓고 본다면 『유정』이 담고 있는 '마음'의 문제란, 변해버린 인심 속에서 변치 않는 지조를 요청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는다고 할 수 있다.

---

46) 「제8회 동우회 공합」, 1934. 1.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광수, 『유정』, 태학사, 2019.  
이광수,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62-1963.  
주요한, 『안도산 전서』, 삼중당, 1963.  
『조선일보』, 『동아일보』, 『동광』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2. 단행본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2, 솔.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레프 톨스토이, 『부활』1,2, 백승무 옮김, 문학동네, 2013.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3. 논문

- 김진영, 「삶의 텍스트, 소설의 텍스트」, 『Comparative Korean Studies』22(3), 2014, 11-49면.  
박진영, 「한국에 온 톨스토이」, 『한국근대문학연구』23, 2011.4, 193-227면.  
박진숙, 「이광수의 「무명」과 톨스토이의 「부활」과의 관련성」, 『춘원연구학보』19, 2020.12, 9-37면.  
정주아, 「이광수 『유정』의 신문연재본과 이본들」, 『인문논총』75(4), 2018, 195-227면.  
정주아, 「공공의 적과 불편한 동반자」, 『한국현대문학연구』40, 2013.8, 319-353면.  
최주한, 「이광수와 번역-「어둠의 힘」(1923)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94, 2016.5, 423-449면.

<Abstract>

The Specters of Siberia  
and the Experiment of Family Love  
-Focusing on Lee Kwang-soo's *Yujeong*[有情]  
and Ahn Chang-ho's articles

Joung, Ju A

This paper discussed the meaning of “problem of feelings” in *Yujeong* [有情] that was written by Lee Kwang-soo. This article accounted for three points: Firstly, in the 1930s,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socialist movement, Lee suggested the spiritualism as a methodology of national unity. Secondl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iberia, where feelings are dissipated and controlled, was discussed by comparing Tolstoy's life and *Resurrection*. Finally,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the plot of ‘*Yujeong*’ and the idea of Ahn Changho’s articles in *Donggwang*[東光]. The form and content of *Yujeong* represented the methodology of 'emotional education' that asked for the eternal and tight family love, which is called as ‘jeong-ui[情誼]’ by Ahn.

Key words: Lee Kang-soo, Ahn Chng-ho, *Yujeong*, Tolstoy, *Donggwang*, spiritualism, family love[情誼]

투 고 일: 2022년 5월 15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6월 20일